

쓴 맛 본 아이돌들의 재데뷔... 유니티(UNI.T)

'우린 새롭게 시작해요'

데뷔 앨범 '라인' 도 공개

"'헬로비너스'를 탈퇴하고 아이돌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더 유닛'을 접하고,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죠. 다시 걸그룹을 하고 싶어도, 신인 그룹으로 데뷔하기에는 나이가 많아 벼락기 때문이죠."(윤조)

KBS 2TV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더 유닛'은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를 표방했다. 연습생들이 경험하는 엠넷의 '프로듀스 101' 시리즈와 달리, 한번 데뷔를 했으나 쓴 맛을 본 아이돌의 '부활'을 목표로 삼았다. 그래서 참여자들의 사연은 더 절절했고 꿈은 더 애잔했다.

18일 오후 6시 데뷔 앨범 '라인(Line)'을 공개한 '유니티(UNI.T)'는 '더 유닛'을 통해 결성된 걸그룹이다. 이미 그룹 또는 솔로로 활동한

멤버들이 뭉쳤다.

소나무의 의진(22), 다이아의 예빈(21), 솔로로 활동한 앤써아(22), 헬로비너스 출신의 윤조(26), 에이프릴 출신의 이현주(20), 스피카 출신의 양지원(30), 달샤벳의 우희(27), 라붐의 지연(24), 리얼걸프로젝트의 이수지(20)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재데뷔인만큼 최근 데뷔하는 신인 걸그룹에 비해 평균 나이가 비교적 많은 편이다. 만 23.5세다. 그러나 투지는 더 불타오른다.

앨범 제목 '라인'은 새로운 출발선을 뜻한다. 그 동안 깨지 못했던 경계를 넘어서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타이틀곡 '넘어(No More)'는 신사동호랭이와 신에 작곡가 디자인88이 프로듀싱했다. 앨범에는 '더 유닛' 파이널 경연곡인 '유&아이(내가 하고 싶은 말은)'과 '팅'을 재녹음해 실었다.



KBS 오디션 프로그램 '더유닛' 결성 걸그룹 '유니티(UNI.T)'가 최근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KBS 2TV 오디션 '더 유닛'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 표방

소나무 의진·솔로활동 앤써아 스피카 양지원·달샤벳 우희 등 옛 걸그룹 멤버·솔로 가수 '하나로'

앨범 제목 '라인', 새로운 출발선 뜻해 앨범에는 '더 유닛' 파이널 경연곡 '유&아이'·'팅' 재녹음해 실어

재데뷔를 하는 만큼 멤버들의 의지는 더 단단했다. 의진은 "처음에 데뷔했을 때는 아쉬움이 컸어요. 그 때보다 부족했던 점을 보완했고 좀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했죠"라며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의진이 몸 담은 소나무는 합합 컨셉트로 데

뷔했다. "남자 그룹 스타일의 춤을 추다 보니까, 힘들어서 너무 많이 먹었다"면서 "그러다보니가 살이 불더라고요. 돌아보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무대를 한 것도 아니었어요"라고 기억했다. "그 때보다 더 다이어트를 하며 몸 관리를 했고, 무대 준비도 열심히 했다"며 웃었다.

데뷔가 실패한 만큼 의기소침해진 면도 있었다. 예빈은 '더 유닛'을 하면서 최종 결성되는 팀에 도움이 되지 못했는지 고민이 돼서 우울해졌다고 털어놓았다. "제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할 것 같다"는 걱정이 들었다는 얘기도.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긍정적으로 마음가짐을 바꿔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라면서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믿고 후회 없이 해보려고 결심했습니다"고 말했다.

거듭되는 실패에도 이들이 아이돌 꿈을 놓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윤조는 "마지막으로 팬들 앞에서 노래하고 싶었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아이돌 공화국'이다. 해마다 수

많은 아이돌 그룹이 명멸한다. 그럼에도 초반에 주목 받지 못하다가 뒤늦게 빛을 본 뒤 자신만의 성장 서사를 써내려가는 그룹도 분명 존재한다.

유니티의 리더를 맡은 우희는 "사람 일은 모른다"는 말로 기적 같은 이번 팀 결성에 대해 설명했다. 다시 기회가 주어질지 몰랐다는 얘기도. "이렇게 데뷔를 다시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신기한 경험이지요. 덕분에 좋은 사람들을 알고 만나게 됐죠."

무엇보다 '더 유닛'은 아홉 멤버에게 스스로를 다시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패자부활전이 아닌 데뷔 앨범 제목 그대로, 새로운 출발선상에서 자신을 새삼 돌아보게 된 것이다.

우희는 "한때 자존감, 자신감이 없었어요. 여유도 없고 지쳐 있었죠. 지금은 고걸 이기고 긍정적이게 됐어요. 저에 대한 고민도 없그레이트 됐죠. 큰 욕심은 없어요. 그래도 차트 50위권에 들었으면 좋겠어요"라며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뉴시스



의진, 예빈, 앤써아, 윤조, 이현주, 이수지, 지연, 우희, 양지원.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방탄' 새앨범, 베일 벗었다... '러브 유어셀프전 '티어''

글로벌 그룹 '방탄소년단'의 새 앨범이 베일을 벗었다. 18일 음원사이트를 통해 정규 3집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LOVE YOURSELF 轉 'Tear')를 공개했다.

사랑의 끝, 이별의 아픔과 상실감을 표현한 앨범이다. 타이틀곡 '페이크 러브(FAKE LOVE)'를 포함해 총 11곡이 수록됐다.

'페이크 러브'는 그런지 록 기타 사운드와 트랩 비트가 음산한 이모(emo) 힙합 장르다.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운명인 줄 알았던 사랑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내용"이라면서 "이별의 감성을 방탄소년단만의 노랫말과 사운드로 담아내 슬프지만,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고 소개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앨범에서도 자신들의 고민과 이야기를 풀어냈다. 제이홉(24)의 믹스테이프 수록곡 '에어플레이'의 연장선인 '에어플레이 pt.2'는 멤버들이 월드 투어로 세계를 누비며 느낀 솔직한 감정들을 담았다.

세상에서 가장 약한 영웅 '양광맨'의 모습을 방탄소년단에게 빚낸 '양광맨'을 통해서 음악과 무대로 사람들에게 희망의 에너지를 전달하고 싶은 바람을 들려준다.

특히, 정국이 프로듀싱한 팬송 '매지슝'과 방탄소년단에게 사랑을 보내주고 있는 팬클럽 '아미'와 미로 속에서 갇혀 있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러브 메이즈', 슈가(25)가 팬들에게 신년인사로 전한 '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라는 말을 확장해 만든 '낙원'도 포함됐다.

이밖에 글로벌 히트곡 '마이크 드롭' 리믹스로 호흡을 맞췄던 스티브 아오키(31)가 참여한 진(26), 지민(23), 뷔(23), 정국(21)의 유닛 곡 '전하지 못한 진심'을 비롯해 방탄소년단의 아날로그적 사운드가 특징인 '134340', EDM 장르로 내적 댄스를 유발하는 '소 앓', 뷔의 보컬 매력을 보여주는 '인트로: 심플래티티'가 실렸다.

앨범의 끝을 장식하는 '아웃트로 : 티어'는 '러브 유어셀프 하이라이트 릴 '전'의 메인 테마 음악을 샘플링해 만든 힙합곡이다. RM(24), 슈가, 제이홉의 래핑이 돋보인다. /뉴시스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